

# 광주일보 제4기 독자위원회 2차회의

일시: 2010년 6월 14일 오후 5시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 4기 독자위원회 2010년 2차 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일환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광주일보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지향해 나가야 하는지 아이디어 등을 제안했다.

## “지방선거 유권자에 좋은 후보 기준 제시해 큰 도움”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광주 시내 초등학교  
개방문제 논의해야

▲김현석(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 최근 핫 이슈는 지방선거다. 하지만 이 이슈에 가려져 부각되지 못한 부분이 지역경제 부분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건설사 1, 2위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데 이어 3위인 금강기업도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는 등 이른바 지역 빅 3가 무너진 상태. 최근엔 향토기업인 박마르도 법정관리를 신청,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 위원들께서는 광주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급없는 의견 부탁한다.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경제 기사 관련  
그래픽·도표 많이 활용을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지방선거 기간 광주일보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에게 좋은 후보들의 기준을 제시해 후보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대안 제시는 물론 향후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지역선도지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류동훈 (광주·전남 행복발전소 문화사업단 본부장)



광주프로축구단 창단  
다양한 기사 써 달라

지방선거는 일단 끝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최근 우리 지역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지난 9일자 1면 '지역경제 지킬 금융이 없다' 기사는 광주은행이 왜 지방은행으로 남아야 하는지 잘 제시했다.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리빙면 20대 기사 많아  
주부 필요 내용 발굴을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대해 어느 주장이 맞는지 경제현안에 소속된 우리들도 헷갈린다. 가능하다면 광주일보가 큰 틀의 흐름을 잘 잡아왔으면 한다. 경제 기사와 관련하여 사진이나 그래픽·도표 등을 많이 넣어서 기사를 읽기 쉽게 편집해줬으면 한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제기사를 읽기 편하게 해달라.

임선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임을 위한 행진곡’ 불법  
사실전달만 그쳐 아쉬워

▲이병우(보해양조 홍보이사) = 지난 5월20일자 1면 '지방선거 이렇게 치르자-일당 독점 이제는 깨자' 기사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제목은 좋았으나 일당 독점을 왜 깨야 하는지에 대해 근거가 부족했다. 심층 보도로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 아쉬웠다.

지난 5월31일 7면 '선생님 학교선 금연하세요' 기사는 금연의 날을 맞아 광주일보가 적절히 지적한 기사였다. 학교 휴게실에서 담배 못피게 돼 있는데 교사들이 마음대로 피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런 풍토가 없어졌으면 한다.

▲임선숙(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개인적으로 정부의 4대 강 사업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대 우리 지역 영산강의 경우 수질개선을 해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과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이상하게 혼재되어 있다.

광주일보의 영산강살리기 이슈 점검 기사를 봤는데 제목인 영산강살리기라는 것에서부터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기사내용도 마찬가지다. 찬반의 주장을 고루 심기 했지만 반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논거가 빠져 있다. 반면 찬성쪽의 논거는 담당자 등의 말을 인용하는 등 좀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런데 광주일보의 기사는 사실전달에만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뜻과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이묘숙(송은갤러리 관장) = 지난 5월8일자 사설인 '취업난에, 학비 연체에... 활로 없는 지방대생'은 지방대생의 애환을 잘 표현해줬다. 광주일보가 이런 기사를 자주 다루어 심층성을 부각시켜줬으면 좋겠다.

지난 5월11일자 5면의 '110년 전 파리박람회 한국관에는...'는 많은 이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을 광주일보가 잘 다루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대담한 발견인데 좀더 지면을 할애 했어야 했다.

지난 2일자 '광주·전남대해부 4부 교육도시 광주' 기사는 단순 통계의 나열로 실망스러웠다. 기획 기사인 만큼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실어줬으면 한다. 30~40대의 주부들이 많이 보는 광주일보인데 리빙면에서는 20대 위주의 기사가 많아 다소 아쉽다. 주부들이 필요한 내용을 발굴해 달라.

▲조미옥(나주 봉황중학교 교사) = 6·2지방선거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중앙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당선자들의 공약도 그 실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보도태도가 중요하다.

6월5일자 13면 '문화재 지킴이 1만명 양병 나서자' 내용의 독자들이 있었는데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또 금남로 공원을 소개해 준 기사도 있었는데 시내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학교 학생을 상대로 광주일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스포츠면에 골프와 야구에 너무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광고에 보기 민망한 내용이 많다고 했다. 광고 문구 하나에도 신경써서 아이들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 달라.

▲김현석 = 최근 제 2의 내영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가슴 아프다. 광주 시내 초등학교의 개방문제에 대해 논의를 제기해보는 것은 어떨까?

미국은 학부모들이 방문해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일본도 수업시간에는 문이 완전히 닫혀 학부모 출입도 까다롭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학교는 어린이 범죄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 표현할 정도로 출입이 자유롭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 3, 4의 내영이 사건 일어날 것이다.

▲조미옥 = 김 교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시골의 경우 우면 단위에 학교가 한 두개 뿐이어서 지역민들의 체육공간으로도 활용이 돼야 하는 형편이다. 출입이 제한되면 지역간 소통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당장 답을 찾는 것보다 지역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김현석 = 맞는 말씀이다. 무조건 답을 찾는 게 아닌 최소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만큼은 학교에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문상필(광주시의원 당선자) = 4대강 문제 뿐 아니라 광주댐 높이는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댐 높이를 2m 가량 세우는 방안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영산강 뿐 아니라 주위의 환경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선거를 직접 치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파행에 대한 민심이반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그 문제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광주일보 역시 정확한 팩트로 기사를 쓰는 것보다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 기사를 썼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독점 구조가 문제라면 어떤 내용이 문제였는지 팩트가 없었지만 시민들은 그 이미지만으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갖게 됐다.

▲류동훈(광주·전남 행복발전소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 광주의 프로축구단 창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일보도 한 면을 할애해 자세히 소개해줬다. 이후 보도에도 신경을 써 보기를 일으켰야 한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돈이 모여야 성공하는 만큼 알만큼 모였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달라.

지방선거 후 선거비 보전 접수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이를 분석해서

문상필 (광주시의원 당선자)



광주댐 높이는 사업  
문제 제기 해줬으면

조미옥 (나주 봉황중학교 교사)



보기 민망한 광고 많아  
문구 하나에도 신경써야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단발적 기사 아닌  
기획보도 늘렸으면

이병우 (보해양조 홍보이사)



‘선생님 학교선...’  
금연의 날 기사 적절

각 당선자들이 선거홍보물이나 관련 제작물을 지역업체에 얼마나 맡겼는지 조사해보는 건 어떨까? 많은 후보들이 광주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분석후 기사화해 앞으로는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철갑(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 단발적인 기사가 아닌 기획보도를 더욱 늘려줬으면 한다. 기획기사도 겹칠까 식의 기사는 자제하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좋은 기사를 만들어야 한다. /정리=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MEGABOX

1관	포화속으로 (124)	최고급관
2관	섹스 앤 더 시티2 (184)	
3관	방자전 (184)	
4관	포화속으로 (124)	
5관	드래곤길동이기3D(자막)더빙(선제)	
6관	스트리스댄스 (124)	
7관	포화속으로 (124)	
8관	베스트키드(124)	
9관	영문2(154)/대한민국VS아르헨티나	
10관	A-특공대(124)/대한민국VS아르헨티나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람그리드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http://www.megabox.co.kr)  
구.림원약국사거리 ☎ 1544-0600

### 컬롬버스시네마

1관	A-특공대 (154)
2관	드래곤길동이기3D (선제)
3관	섹스 앤 더 시티2 (184)
4관	베스트 키드 (124) / 방자전 (184)
5관	방자전 (184)
6관	스트리스댄스 (124)
7관	페르시아의 왕자 (124)
8관	포화속으로 (124)
9관	영문2 (154)
10관	포화속으로 (124)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권, 아남점 동시개봉!  
무조건 해치운다!

1588-7941 상담연결방 번호(1번 or 2번) → 0번

### CINUS 색깔있는 영화신력 씨너스

1관	방자전 (184)
2관	A-특공대 (154)
3관	포화속으로 (124)
4관	베스트 키드 (124)
5관	드래곤길동이기3D(자막)번제
6관	스트리스댄스 (124)
7관	페르시아의 왕자(124)/섹스 앤 더 시티2(184)
8관	포화속으로 (124)

씨너스 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아음통신사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신력 • [www.cinus.co.kr](http://www.cinus.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 Primus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 곳 제일극장

1관	포화속으로 (124)
2관	영문2 (154)
3관	스트리스댄스 (124)
4관	방자전 (184)
5관	내 짝꿍같은 애인 (154)
6관	섹스 앤 더 시티2 (18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서무소 앞 효나더우주저장 - 단, 입장권 구매 교외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http://www.primuscinema.com) / [www.jellicinema.co.kr](http://www.jellicinema.co.kr)  
종장로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